

다중 미니 면접(MMI)

주로 의과대학에서 지원자의 인성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하는 면접.

미래의료인의 자질을 확인

취재 송지연 기자 nano37@naeil.com

다중 미니 면접은 의과대학 지원자의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 소통·공감 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면접입니다. 여러 개의 면접실을 오가며 진행하는데,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거나 의료인이 마주할 만한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고 의견을 묻습니다. 정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생각을 타당한 근거와 함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몇 개의 면접실을 오가게 되나요?

대학별로 면접실의 개수와 주어지는 시간이 다릅니다. 2026 연세대 활동우수전형은 면접을 1·2차로 나눠 진행하며 면접 준비실과 고사장별로 8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고려대 계열적합전형의 면접은 총 3차로 이루어져 있고, 최초의 제시문 기반 면접은 준비 시간 21분이 주어지지만 이후 인·적성 면접은 준비 시간이 없습니다. 면접 시간은 각 7~8분입니다.

면접의 영향력이 큰 편인가요?

다중 미니 면접의 영향력을 명확하게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점수 체계를 공개하지 않으며, 정해진 답이 없는 만큼 점수를 촌촌히 나누는 것도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격 사유가 확실한 답은 존재하므로 의료인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학생을 판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중 미니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희망 대학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는 제시문 기반 면접과 마찬가지로 대학별 홈페이지, 선행학습 영향 평가 보고서에 공개됩니다. 또한 평소 의료 관련 신문, 잡지, 도서를 찾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흔히 다중 미니 면접은 학교에서 대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사교육의 힘을 빌리지만, 시·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면접 대비 프로그램도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